

# 주말·휴일 금남로 정치축제 즐기러 가자

### 20~21일 시민정치페스티벌

### ‘시민정책마켓’ 미래 비전 제시

### 민주대성회 재현...정책 의결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축제와 직접 참여의 형태로 치러진다.

‘제52회 광주시민의 날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이 ‘모두를 위한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20일부터 이틀간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다.

2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1일 기념식, 광주시민총회, 시민정책마켓, 시민참여한마당, 자원봉사박람회 등 총 5개 분야 18

종의 프로그램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민의 날 행사가 이틀에 걸쳐 열리는 것은 1966년 개최 이후 처음이다.

광주시는 올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와 시민기획단을 15회에 걸쳐 운영했다.

행사 첫날인 20일 오후 7시부터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가 ‘시민, 오월에서 촛불까지’라는 주제 영상 상영, 초창기 수마아, 김원중의 공연, 공모를 통해 참여한 시민 참가팀 공연 등으로 1시간40분 가량 금남로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행사 둘째날인 21일 오전 11시부터 ‘1일 시민시장’과 어린이청소년 명예의장의 기념사와 축사, 인권관장 낭독, 시민대상 시상 등 기념식이 1시간 가량 진행되며 식전 행사로 빅맨싱어즈의 공연도 마련된다.

광주 시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한곳에 모아 실질적 구매자(자치단체장,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관심 있는 시민 등)와 연결해 정책 현실화를 촉진하는 ‘시민정책마켓’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환경, 자치, 여성, 복지 등 7개 분야 28개 전국의 우수 정책들을 비롯해 광주시와 자치구의 미래 비전을 담은 14개 정책이 전시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열린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재현한다. 민회를 거쳐 발굴된 10개의 시민정책(조례안)을 현장에서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시민대성회인 ‘광주시민총회’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21분까지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시민참여한마당’에는 ▲주먹밥 체험, 고려인마을 뺑, 북한음식, 베트남 비빔국수 체험 등 먹거리 ▲금남로팝스타, 시민 ON STAGE의 불거리 ▲거리로 나온 시민화가, 시민캐버스 캐리커처, 어린이 풀장, 금남로 캠프, 시민예술가게, 포토존, 훈이오빠 자전거 나들이, 단체출렁기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복지재단 “1인 가구 지원 조례 필요”

### 10집당 3집 꼴...낮은 소득·건강 수준 문제

광주시 10가구당 3가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확인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광주복지재단(대표 장현)은 정책 개발팀의 연구결과 제시 및 현안과제 분석을 담은 소식지 ‘광주복지 Brief’를 매월 발간, 복지이슈를 공유하고 재단의 연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달 초에 발송된 ‘광주복지 Brief’ 제6호는 ‘광주시 1인가구 현황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현황과 특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광주복지 Brief 제6호에 따르면, 광주시의 1인가구는 1990년 2만3050가구에서 2015년 16만3577가구로 7배로 증가, 광주시 10가구당 3가구는 1인 가구로 확인됐다.

연도별 1인구주택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광주시는 남성 1인 가구의 비중이 2005년 44.4%→2010년 47.4%→2015년

50.9%로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 및 연령별 분포 현황을 보면 1인 가구의 여성고령화(36.4%)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인 가구의 분포가 높은 자치구는 동구(38.6%)이고, 동별 분포는 서남동(70.6%)이 가장 높았다.

광주복지 Brief는 2016 광주사회조사 재분석을 통해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월평균 소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1인 가구의 행복지수는 6.29점으로 광주시민의 평균 6.89점과 다인가구의 6.99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광주복지 Brief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소득, 주거, 건강,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1인 가구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시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시, 최고 3억원 저금리 융자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등 시설개선자금을 연 1~2%대 저금리로 최고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광주시는 시설개선 자금을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는 업소로,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다. 또한, 모범업소 중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실현을 위한 자금 희망 업소도 포함되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업소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시 식품안전과(062-613-4363)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등산 정상 개방(20일) 대비 구조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6일 무등산 중봉과 서석대 일원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 수도요금 체납징수전담반 6월까지 운영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화에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4월 중순 기준으로 20억7800만원이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6건 이상 장기체납 3661건 3억7400만원과 50만원 이상 고액체납 277건 3억6500만원에 대해 징수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5개 지역사업소, 47개반, 93명으로 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한 세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 등을 통해 자

진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체납자의 납부능력에 따라 정수처분보다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최대한 자진납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정평호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하수도요금은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며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요금은 반드시 자진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시-英 연구기관 ‘공용 전기차’ 발전 방향 논의

유럽 최고의 자동차 연구기관 영국 호리바마이라 주관으로 16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전기차 공용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광주시와 광주그린카진흥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지역 부품기업 대표, 지우롱코리아 대표 등 지역 전기자동차 생산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생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공용화 플랫폼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 설계와 개발에 대한 지역 역량이 부족한 실정

이다.

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글로벌 연구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협력관계를 추진, 지난 3월20일 광주그린카진흥원과 함께 유럽 최고 자동차 연구기관인 영국의 호리바마이라와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호리바마이라와 세계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기술정보 교류 및 기술개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

키로 했다.

광주시는 호리바마이라에 전기자동차 개발·생산에 대해 개발 전략과 기획, 설계,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 광주지역 부품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등 협력 방안을 제안토록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에 따른 것으로, 호리바마이라는 전기자동차 공용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단계별 기획 및 상세 프로그램, 1톤 전기트럭 개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호리바마이라의 제안을 바탕으로 광주 지역 역량을 모아 전기자동차 공용화 플랫폼

개발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에 전장 부품 산업기반 조성과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친환경차 안전연구원 설립 등을 포함한 ‘미래형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어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배 시 전라산업본부장은 “유럽 최고 연구기관과 지역 부품기업이 협력해 전기자동차 공용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생산하게 되면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되는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올 가을 은행나무 악취 좀 덜해져요

### 1500그루 불임제 살포

광주시는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악취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백서로 등 15개 노선 은행나무 1900여 그루에 대해 인공 불임제(적화제)를 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적화제는 은행나무 수정이 활발한 시기에 수나무와 암나무의 생식기능을 억제하고, 수나무의 꽃가루 비산과 암나무의 수정을 방해해 은행 열매 결실을 줄인다.

광주시는 그동안 은행나무 열매로 야기되는 냄새, 안전사고 발생 등 시민 불

편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 은행나무 열매 수거반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해부터 은행나무 수정기에 적화제를 사용해 열매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은행나무 열매 수거반을 운영해 악취 민원 해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